

2018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9.20.(목) 오전 10: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심층성, 정확성, 신뢰성 제고

- 일요일 오전9시 뉴스에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보도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미국 수정헌법25조 적용을 주장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아는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 수정헌법 25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런 주장이 있다고만 보도하고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것(최신용 위원)
- 사회 문제 관련 뉴스 중, 유독 성폭행, 성추행 관련 뉴스가 많은 느낌임. 미투 등으로 성폭행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라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 단순한 사건 사고에서도 경찰, 교수, 교사, 학생 등의 성폭행 관련 뉴스는 꼭 챙기는 느낌. 소위 말하는 "선정적인 뉴스"로서 내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됨. 특히 청소년 폭행 혹은 성폭행 관련 보도: 대부분이 단순한 사실 보도임. 원인이나 대책 등에 관한 심층보도나 제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하규섭 위원)
-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보도는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했음. 그런데 최근 4-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서서히 줄어서 제일 높을 때와 비교하면 20% 가량 감소하는 등 자살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도도 같이 있었으면 '자살은 예방되지 않는다'는 사회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하규섭 위원)
- 라이브투데이, 모닝 와이와 출발 640에서 다루었던 뉴스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심한데 중요도 낮은 뉴스는 과감히 제거하고, 몇 가지 이슈 중심으로 다각, 심층 보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이경상 위원)
- 82년생 김지영 관련. 아이린에 이어 정유미 출연에 대해 간략하게 사실보도.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자제한 것은 중립성, 기계적 객관성 관점에서 페미니즘 논란 회피로 보임. 최근 고조되고 있는 페미니즘 입장에서 적극 보도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종부세 공시가격 오보. 9억에서 6억으로 자막처리 오보가 확산됨. 연합뉴스 보도 활용시 확인이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최근 영국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발간한 2018 Digital News Report 보고서가 공개됐음. 이 보고서는 37개 국가에서 7만4,00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뉴스이용 행태와 인식을 조사한 국제적 보고서임. 우리나라에 대한 주간 뉴스이용 현황에 따르면 연합뉴스TV 이용률이 전체 6위로 상당히 높게 나와 반가웠음. 종편이나 메이저신문보다 앞서고 지상파에 근접하는 수준이기 때문임. 그렇

지만 매체 브랜드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는 상위 16개 매체 명단에 들지 못했음. 이용은 많이 하지만, 그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여서 시청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음(배정근 위원)

▲ 화면구성, 자막 등 표현 개선 필요

- 뉴스 방송 스튜디오의 배경과 그래픽 등이 지나치게 밝고 가벼운 색 위주였는데, 보다 안정적인 색깔 톤으로 개선된 것이 보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좀 더 차분하고 무거운 색과 보색을 시도해 보아도 좋을 듯함(오준 위원장)
- 역사의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가 많음. 화면에는 현장의 모습이 중계되면서 아나운서와 외부 인사가 대화를 나누거나 해설, 설명하는 방송이 자주 있는데, 이 경우 방송 중간, 중간에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화면 일부에 나오면서 성명, 직책 등이 자막에 나오면 좋겠음. 화면에는 현장 생중계가 나오고, 목소리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지 모름. 특히 뉴스를 처음부터 보지 않은 경우 더욱 알 수가 없음(김석민 위원)
- 자막의 표기 관련입니다.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에 가끔 불명확한 자막들이 보이는데,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김석민 위원)
- 스크롤 자막의 경우, 국, 내외 뉴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의 구분 없이 내용이 나오는데 뉴스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는 것인지 잘 모르겠음(예, 멕시코 사고 소식, 추신수 무안타, 경기 화성 화재, 수원 성곽길 행사, 대학 수시모집, 이집트 난민 단식, 여객선 침몰, 알바생, 미.중 관세, 일본 화산 분화, 예상 강수량 등등), 시청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음. 뉴스 프로그램에 따라 분야별로 정리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속보 식으로 뉴스를 바로바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기도 함(김석민 위원)
- 일요일 명품리포트 맥의 타이틀이 한자로만 표기되어. 비록 한 글자에 불과하더라도 한자를 모르는 세대에게는 이해가 될지 의문임. 의외로 한자를 잘 해독하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많은 걸 보면 타이틀을 제작할 때 괄호 안에 한글 음을 달아 주면 좋을 듯함(최신용 위원)

▲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견

- 연합뉴스tv의 성가는 현장에서 잘 나타남. 특히 현장이 대형일 경우 그 진가는 더 커짐.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보도는 그 좋은 본보기였음. 채널을 23에 맞추면 평양 회담 관련 소식을 언제나 보고 들을 수 있었음. 첫날 서울을 출발해 순안공항에 도착해 평양으로 이동할 때까지 연합뉴스tv는 두 사람 혹은 네 사람의 전문가를 초청해 그 소식과 배경 전망 등을 전했다. 두 명은 남성, 두 명은 여성이었음.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경우 남성 전문가만 초청하는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그리고 신선한 파격이었음. 특히 한 여성은 새터민이었음. 북한과 평양에 대해 온몸으로 기억하는 그래서 그 변화상을 생생하게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종편 탕이 크겠지만 티브이에 출연하는 새터민은 북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로 중무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들이 종편에서 줄곧 보여주거나 전해온 편견과 과장 때론 거짓은 새터민 전체의 발언에 대해 식상케 만들었음. 그러나 연합뉴스tv의 새터민 출연자는 전혀 달랐음. 그가 보여준 객관성과 구체성은 시청자들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음(곽병찬 위원)

- 첫날 목란관 환영 만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환영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답사가 잘 들리지 않았음. 두 사람의 평소 목소리도 달랐고 갈라지고 찢어져 들을 수가 없었음. 경쟁사도 마찬가지였음. 그러나 한국방송가 전하는 소리는 또렷했고 평소와 같았음. 공동취재단이 보내온 영상을 송출한 것뿐일 텐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 편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음. 채널23만 틀면 정상회담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같은 뉴스가 반복되다보니 채널을 돌리게 됨. 생중계로 본 평양의 모습은 많은 궁금증을 낳았음. 우리 뉴스만 보면 북은 제재 때문에 곧 망할 것 같았는데, 겉모습은 멋진 신세계를 연상시켰음. 삼지연 관현악단 여성 보컬의 핫팬티 패션은 아찔할 정도였음. 북한의 경제 사정은 어떨지, 지금까지 성장 속도와 주민의 생활은 어떨지, 주민의 여가 문화는 어떨지, 대중문화나 패션 디자인 등의 현주소는 어떨지 설명하는 코너를 통해 다채롭게 꾸몄으면 좋았을 것임.
- 최근 뉴스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남북정상회담 관련입니다. 현장 중계도 있고, 정상회담 등의 보도, 설명,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의 뉴스가 이루어짐.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됨. 장애인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수화 진행이 필요함(김석민 위원)

▲ 앵커, 작가 등 의견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한에서 벌어졌고, 회담 성격상 진행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시간 보도를 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됨. 전반적으로 짚을 것을 잘 짚어가며 너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커버했다고 생각함. 기사와 영상이 모두 풀로 제공되는 이런 생중계 보도에서는 결국 스트레이트 뉴스보다는 해설식 대담 프로그램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행사 진행과 합의 과정의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고, 의미를 해설해주는 대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 방문 첫날인 18일 저녁 9시~10대 뉴스특보에서는 정치부 이봉석 기자가 나와 두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는데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된 담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설로 신뢰감을 주었음. 앵커들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가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었음. 다만 19일 오전 뉴스 특보에서는 외부 북한문제 전문가 2명이 나와 다른 남여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유엔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놓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앵커가 물어보았지만 대담자는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답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또 잠시 후에는 방북경제인들이 조선인민군 양묘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거론하며 다시 이곳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이 대담자는 '자신도 궁금하다'며 식량자급 자족과 관련한 장소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음. 대담자는 이 양묘장이 나무를 기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고, 명칭도 '양모단'이라고 계속 말하기도 했음. 이 같은 해프닝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앵커와 대담자 사이에 사전 조율이 없어서 생긴 문제 아닌가 싶음(배정근 위원)

- 앵커의 중요한 일은 뉴스의 의미 짚어주고, 시청자 공감을 끌어내는 일임. 앵커가 피해야 할 일은 (현장기자 연결 없이) 리포팅만 자주 한다거나, 현장기자가 할 말까지 하는 등 뉴스 전달자 역할임(이경상 위원)
- 작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앵커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현장 기자의 보도와 맞물려 생동감이 높아지도록, 스크립트에 To-Do와, Not-To-Do를 잘 담아줬으면 함(이경상 위원)
- 일반 사건 사고 등 시사 뉴스 논평자들 중에 지나치게 흥분된 목소리로 시청자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격앙된 논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논평의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용을 떠나서 논평을 개진하는 발언 스타일과 매너가 시청자의 눈과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패널 선정 시 최소한의 기본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기타 의견

- 출발 640, 수도권쪽지에서 기사가 칼칼 쏟아지는 화면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음.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함(이경상 위원)
- 광고주 리스트 송출화면이 길어 채널 변경을 유도함. 광고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일 것임, 뉴스도 반복이 많은데 광고도 반복됨. 광고반복만이라도 없었으면 함(이경상 위원)

(끝).